자주식입체주차설비개발로도시주차난해소

황광호 (주)성림피에스 회장

“ 자주식 입체 주차장 건설 시장은 블루 오션입니다 ”

“대도시 주차 문제는이제어려운단계를 지나‘ 주차 전쟁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제와같이발등의불을끄는식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자주식 입체 주차 설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도시 주차난을 크게 줄일수있는획기적인아이템입니다. ”

자주식 입체 주차 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인 (주)성림피에스의 황광호 회장은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경제성과 친환경적요소를가진자주식입체주차장이앞으로주차장문화의새로운대안으로 떠오를것이라고전망하였다. 자주식입체주차장은평면의대지위에철골구조물로 주차가 가능한 몇 개 층의 공간을 확보해 운전자가차량을직접운전하여주차할수 있도록설치한설비를말한다.

자주식 주차 설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89년이다. 공작물형태의이주차설비는 자투리땅이나 건물 주변 등의 공간을 활용할수있는데다축조신고만으로설치가가능하고, 빠른 시간에 저렴한 공사비로지을 수있는장점이있어다수지어졌다. 하지만 초기에는소음, 진동, 환경적요소들이나타나고객들의불만을사기도하였다.

1990년대 초 중견 건설업체의 사업본부장으로재직하면서주차장이건설된일본의 곳곳을찾아다니며우리나라에적합한주차장설비를연구한황광호회장은 1996년 직접회사를설립해입체주차장건설에뛰어들었다. 특히, 회사연구소에서자체개발한 ‘Floor Pallet System’은 주차장 건물의 미적 감각을 살리는 동시에 도심형 자주식 입체 주차 설비의 주요 과제인 소음, 진동, 누수 부분 등을 해결함으로써 주차 시설의 수명을 기존 10년에서 최고 30년까지 연장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자주식 입체 주차장 건설 시장은 일종의 블루 오션입니다. 주차장전체시장규모는 2,000억원대에불과하지만 앞으로 주차난에 따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주차장 설치 업체들 또한영세하여주어진설계대로시공하는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성 검토,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EPC형기업으로경쟁사에비해10 15% 정도가격경쟁력이있고공기도1/3을단축할수있습니다. ”

성림피에스의 자주식 입체 주차 설비는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다. 1996년 첫 작품으로 설계 · 시공한 한화마트 부평점 부설 주차장은 1999년 12월 국제철강협회가 선정하는세계 40개철강구조물프로젝트에 우수시공사례로선정되었다. 그리고국내 자주식입체주차시설의우수성을해외에 널리알린공로를인정받아정부로부터입체 주차 설비 부문 벤처 기업과 기술 혁신 중소기업으로지정되기도했다.

이후 이 회사는 전국의 병원과 호텔, 백화점, 공항, 지하철 환승 주차장, 공원 및 주택가공영주차장등에자주식입체주차 설비를 적용해 관계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최근에는 현대건설과삼성엔지니어링, GS 건설, 쌍용건설등국내굴지의건설업체들과도OEM 방식으로공사를진행하고있다. OEM 방식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공사는 턴키 베이스로 수행하고 있다. 황광호 회장은 “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1만 9,000평 입체형주차장을불과4개월만에완공할정도로 주차장 설치 기술이 향상되었다 ”며 앞으로도공법및제품기술개발에주력해주차장시장을선도해나아가겠다고말했다.

한편, 환경분야에대한관심이남다른황광호 회장은 건축자재업체, 건축설계회사, 주택건설업체, 환경공조설비업체, 의대 교수, 공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국건강주택협회의수석부회장을맡아왕성한활동을펼치고있다. CJ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